

공동체 소식



연중 제32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11월은 '위령의 달' 입니다.

- 위령의 날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묘지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전대사의 은총을 청합니다.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11/12(토) 오전 11:30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11/19(토) 오전 11:30

반별 반모임 안내

- 내용: 반별로 반모임 날짜를 정하고, 반별 형편에 따라 모임을 진행바랍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추수 감사미사)

- '연중 제34주일'(11/20)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한편 믿는 이들 안에서는 이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추수 감사절' 본 날은 11/26(목)이지만, 이날 대축일과 더불어 추수감사의 의미를 더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 장소: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9	210	155	227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차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차주	김대연 요셉		

애찬 봉사자

금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30	81명	334불	750불
박동희, 김호원, 임창주, 차호섭(총 4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100불, 총합계: 6,1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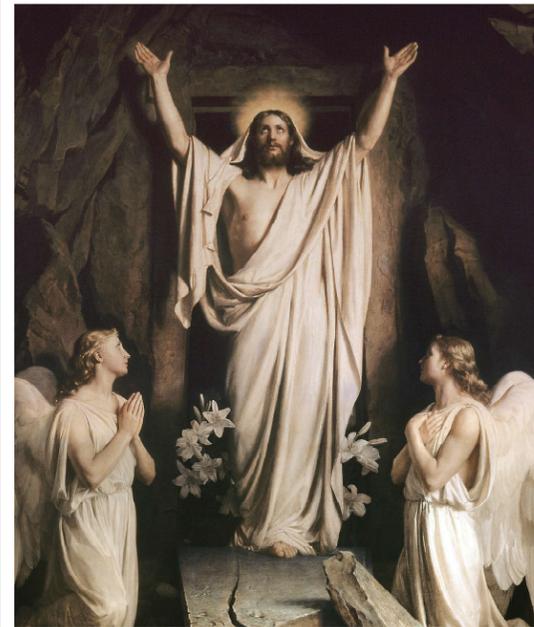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죽은 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 성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느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죽은 이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부활의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신 성자의 말씀과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청하며 미사를 시작합니다.

성화해설

부활 논쟁 (칼 하인리히 부르흐, 1873년, 동판에 유채, 덴마크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루카 20,38)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전능과 예수님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육체에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 육체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마카베오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7,1-2.9-14

<온 세상의 임금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2,16-3,5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힘을 북돋우시어, 온갖 좋은 일과 좋은 말을 하게 해 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죽은 이들의 말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27-38<또는 20,27.34-38>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쉐 마

죽음 그리고 부활



“하느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이다.”(루카 20,38)

루카 복음에 담겨 있는 매우 독특한 이 가르침은 죽음을 완전히 달리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믿음,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사실 구약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생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구약성경 가운데 마지막 시기에 적힌 책들, 특히 오늘 1독서에서 봉독한 마카베오서가 저술되던 시기에 가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부활에 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2마카 7,14) 이 말은 기원전 2세기에 가서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부활을 받아들인 이들은 대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가이들은 죽은 이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했는데 오경에는 부활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들은 부활에 관해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경 구절을 하나 가져와서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두고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느님이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느님 앞에서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은 살아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지상

에서는 죽음을 맞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살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의 다른 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물론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야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수한 성인들이 이미 하느님 어좌에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부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활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승의 문을 열어젖히셔서 죽은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이로 인해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부활을 증명할 수도 없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느님께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카베오 하권에 나오는 일곱 형제들처럼 박해 안에서도 부활을 믿는 이들은 기꺼이 죽음에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서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다시 한 번 부활을 믿으며 하느님께 충실히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부활 신앙을 살아가던 신앙인들이 모두 하느님 앞에서 살아있는 이들, 성인들 반열에 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교만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벌을 받은 우찌야

우찌야는 16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 52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초야의 뒤를 이어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우찌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준 즈카르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주님을 찾는 동안에 하느님께서 그가 성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찌야 임금은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전투를 치러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역대 26,1-6

우찌야는 흠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농업을 발달시켰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탑들을 세우고, 저수 동굴을 많이 팠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방과 기름진 땅에는 농부들과 포도밭 일꾼들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우찌야는 예루살렘의 경비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과 목축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강력한 군대도 만들어 용사 가문들의 우두머리 수는 모두 이천육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얼마나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역대 26,7-13

우찌야는 전군에 작은 방패와 창, 투구, 갑옷, 활, 팔맷돌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 낸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는 마침내 어떤 패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고,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2역대 26,14-23

우찌야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지만 교만해져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우찌야는 모든 일이 성공을 거두고 주위 사람들의 찬양을 받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교훈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교만에 의한 징벌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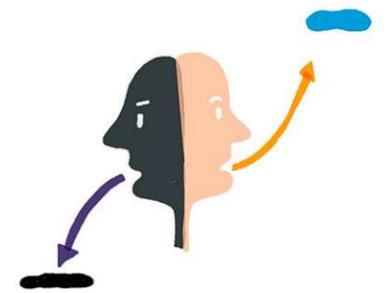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누군가 당신에게 함께 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지

간단한 방법이야

너에게 과거를 묻는지
너에게 미래를 묻는지

함께하는 것은
내일을 함께 하는 것이지
지난 일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



그분은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루카 20,38)